

인도

인도는 한반도보다 무려 15배나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은 8억5천만 명 이상으로, 인도는 세계 제 2의 인구 대국이다. 핵 개발에 성공하고 인공 위성도 몇 개나 쏘아 올린 과학 선진국이지만 의외로 인도는 가난과 공핍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이다.

지난해 인도를 두루 다니면서 느낀 점은 비록 현실이 가난하고 괴롭다 하더라도 인도인에게 심오한 철학과 종교가 있다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로 장수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됨이 많지만 개중에는 90세가 넘도록 오래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인도에서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대개 힌두교 율법을 독실히 믿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인도에선 술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 학자들에 의하면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과 사고력

이 감퇴되고,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고 한다. 또한 심장 장애, 성 기능 저하 등도 나타난다. 다량의 술을 계속 먹을 경우에는 간 질환과 뇌, 심장, 고환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 붉은 포도주를 소량 마시면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다량의 술을 거침없이 계속 마시면 사람은 일찍 늙고 결국 단명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도의 힌두교 인처럼 술을 아예 먹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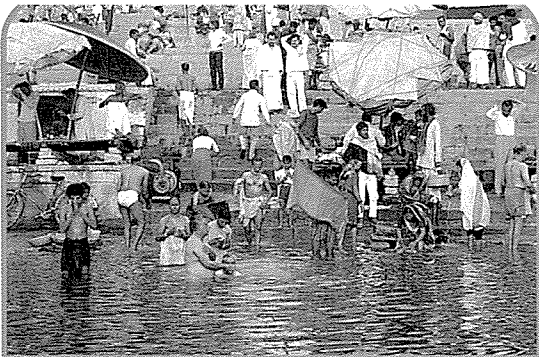
불필요하게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술, 담배를 즐기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갖가지 치명적인 신체 질환이 나타난다. 오히려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기현상이 지구촌에서 일어난다.

생활 수준은 낮지만 악착스럽

◀8

▼ 갠지스 강변에 있는 화장터. 근처에선 목욕이나 양치질을 하는 사람도 많다.





▲ 갠지스강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거나 목욕을 한다.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게 살지 않고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인도의 힌두교인 중에 100세를 넘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이승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도 모르고 타인과 아해관계로 해치려는 마음도 없다.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 의식이 잘 드러나는 곳을 보려면 갠지스강을 찾아가야 한다.

인도 힌두교 최대 성지인 바라나시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원류인 갠지스강이 흐른다. 바라나시를 인도에선 카시(Kas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뜻은 “영적인 빛이 충만한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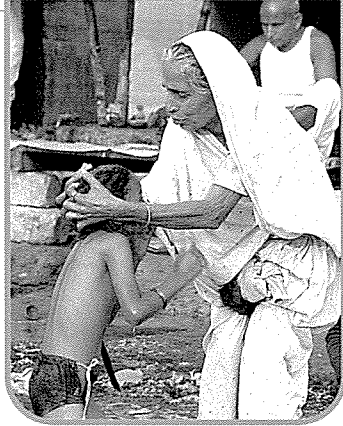
인도의 힌두 교인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바라나시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곳에 갠지스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엄격한 카스트 제도 아래 살고 있는 힌두교인들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갠지스강에서 깨끗이 몸을 씻으면 저승에서 지은 죄가 감해진다고 믿는다. 또한 죽은 후에 좋은 계급에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갠지스강을 찾아 열심히 기도 드리고 몸을 씻는 것이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내린다고 하여 갠지스 강변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원래 인도는 무더운 곳이지만 이른 새벽 갠지스강은 춥다. 긴 팔 옷을 준비해야 할 정도이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인들은 남녀를 불구하고 거의 벗은 몸으로 물 속이나 강변에서 목욕을 하거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남자들은 도티라고 하는 간단한 천으로 아랫도리만 가린 채이고, 여자들은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은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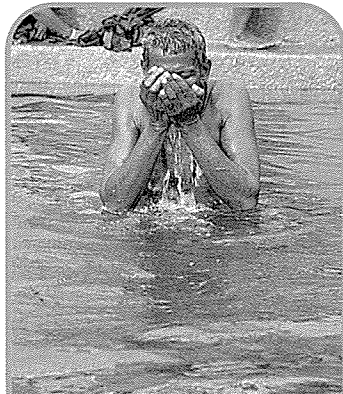
갠지스 강변에는 석조 신전과 사원, 화장터, 목욕을 하는 곳 등이 있다. 어딘지 우중충한 건물들도 많이 보인다. 대개 이런 건물에는 여관, 상점, 집들이 뺨백이 들어차 있다. 주변 양로원에는 병자와 노약자들이 많이 있다.

갠지스강에서 이른 아침 손자의 머리를 감기는 할머니



이들은 이른 아침이면 오래 강가에 나와 죽음을 기다린다. 그들에겐 이곳에서 죽는 것이 큰 영광인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화장되어 자신의 몸을 태운 재가 갠지스강을 흐르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긴다.

따라서 갠지스강의 아침 풍경을 보는 이방인은 큰 충격을 받는다. 강변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을 태우고, 그 재나 타다 만 인간의 시신이 갠지스강을 뚝뚝 떠간다. 그런데 멀지 않은 강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목욕을 하거나 물 속에서 기도를 드린다. 양극화된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이곳이 천당인지, 지옥인지(?) 정신이 가물가물 해진다. ㉞



많은 힌두교인들이, 성스러운 갠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내세에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는다.



인도인들은 갠지스강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내세에는 좀더 살기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